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과 방법 -복음으로 여는 말라기- 말라기 3:10, 마태복음 23:23

정윤돈 목사님

- * **말3: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 * **마23: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죄와 공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준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 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라기 3장 10절에는 십일조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헌금이야기, 십일조이야기를 해서 상처를 받기도 한다. 게다가 앞부분 1장 8절에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가 지도 말한다. 그래서 십일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도둑놈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본문은 십일조를 했느냐 여부뿐 만이 아닌 역사와 배경까지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많은 강사분들이 주일성수와 십일조를 비성경적으로 말해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는 분들도 많다. 저도 그 피해자 중 한 사람이다. 저도 주일학교 때 요절암송, 출석률, 헌금 등을 계산해서 주중 우승반을 정하기도 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주일에 일 하지 말라고 해서 내일 시험인데 공부하지 않고 12시까지 기다렸다가 12시 넘어서 공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십일조를 하고 헌신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었지 강요가 아니었다. 주일성수를 했던 것도 율법적인 이유로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신앙고백으로 했다. 십일조, 주일성수, 전도, 훈련 등 모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강요하던 시대가 있었다. 모세의 율법시대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거나 죽였었다. 또 종교개혁 이전 로마카톨릭시대에는 왕들도 결혼을 하려면 교황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던 시대다. 정치 위에 교회가 있던 시대다.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왕들도 주일성수를 하고 성찬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장로교 교리를 보면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제와 사정을 다 아신다. 택시운전하는 분들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군인들이 주일성수한다고 주일 날 빠지면 어떻게 되나.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런 자가당착과 문

제가 생긴다. 율법은 소중하지만 율법주의는 전쟁과 싸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본질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십일조에 대해 말씀하신 상황을 잘 알아야 한다. 말라기 당시 왜 십일조를 하라고 했을까?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왕에 의해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했다. 그리고 느헤미야 선지자 때는 예배하고 찬양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이방인과 정경유착이 되면서 예배하는 레위인과 찬양하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목적의 성전 곡식을 다 빼돌렸다. 그러니 성전을 어렵게 지어냈는데도 예배를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예배와 교회를 통해 축복하시는데 지도자들이 헌금을 착복하고 빼돌리니까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웠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신다. 최초로 십일조를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축복받고 재물과 보화를 얻게 되자 당시 지역의 왕인 살렘 왕 벨기세택에게 십일조를 했다. 벨기세택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나도 모르게 감사함으로, 신앙고백으로 심분의 일을 헌금했던 그게 십일조의 유래다. 십일조는 상징성이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지만 모든 것을 전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로 십일조를 하는 것이다. 또 야곱이 십일조를 했다. 팔족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벨엘로 도망왔지만 하늘의 사다다리를 보며 자기 동네의 하나님인 줄 알았던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심을 알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감사로 자기도 모르게 창세기 28장 22절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심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고백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고백을 따라 평생 십일조를 한다. 이게 십일조의 본질의 마음이다. 여러분의 헌금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셨다. 유대인보다 과부가 낸 두 렙돈이 더 크다고 하셨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적으로 와있다는 신앙고백으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 바울은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도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게 기준이다. 억지로 한다는 것도 은혜가 부족하다는 말이고, 당연히 할 수 있는 분들이 인색함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수님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없이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면서 종교적으로는 정죄하는 유대인들을 지적했다. 모세시대, 다윗, 솔로몬시대, 로마카톨릭시대에는 국가의 법으로 십일조를 했지만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해야겠다. 하나님은 자발적인 신앙고백을 원하신다. 오늘 말라기의 내용이 이 내용이다.

1.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말라기 1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말씀했다. 부모님과 목사님이 꾸지람을 하더라도 사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데 어린 아이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

(2) 두 번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①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제 조카를 보니까 외국에서 태어나 학기에 천만 원씩 내면서 외국인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도 부모에게 ‘부모님이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더라.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이렇게 무섭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제 사랑했냐고 따진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렸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②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 말라기 1장 6절에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야”라고 말한다. 지도자들이 이익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 우리들이 그렇다. 나의 자리와 이권만

생각한다. 의인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다. ③ 또 그들은 정성이 없는 제사와 제물을 드렸다. 말라기 1장 13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번거롭게 생각하면 끝까지 갈 수 없다. 은혜가 넘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에 축복을 받았음에도 번거롭게 생각하며 코웃음을 친다. 어떤 분은 신권 지폐를 헌금한다. 신권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 말라기 1장 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봉헌을 한 번 총독에게 드러보라고 말한다. 직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는 코웃음치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말도 직장생활에서는 조심히 하면서 교회에서는 함부로 한다. 직장에서는 눈 밖에 나지 않으려 하면서 교회에서는 마음대로 한다. ④ 가정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이혼하는 것이었다. 제사장은 처녀 결혼하는 법이 있어서, 아내의 흠을 잡아 폭행하고 이혼해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가 있었다. 말라기 2장 16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의미는 아내를 때리고 그 멍과 상처를 가리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에서 말로나 폭행, 다양한 방법으로 학대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꾸짖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반드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그런 타락이 만연했었다.

2.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과 회복에 대한 언약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하나님께서는 다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라기 3장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잘못 생각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다. 말씀 중심으로 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돌아가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 나머지 행동은 변하게 된다. 행동이 바뀌면 삶도 바뀐다. ② 두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은 십일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넘치는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돈을 내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강건하기를 바라신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항상 제게 일용할 필요를 채워주셨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은 제게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 저는 십일조를 안 하면 매리시기도 하더라.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에게 더 보여주시는 것 같다. 사실적인 응답도 많이 주신다. ③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러한 성도들의 이름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왕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이다. 여러분이 유공자 명단에 있다면 포상도 주고 상장도 주고 다 준다. 여러분의 신앙의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기를 원한다. 그런 여러분의 헌신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 후손에게 천만 배로 축복을 주신다. ④ 네 번째 복을 받는 방법은 진실하고 흠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많은 성도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눈 멀고 병들고 절름발이 같은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강단에 집중하고 한 마디라도 나의 것을 만들어 응답받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에는 ‘우리’와 ‘너희’라는 단어가 나온다.

‘우리’는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너희’는 전도 받는 사람이다. 전도를 받는 사람은 삶의 어려움,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설득한다. 그리고 전도 받는 사람이 어느 순간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때 다락방은 지교회라 된다. 팀이 되어 두 사람이 함께 전도캠프를 하겠다고 하면 탐사역, 미션홈, 전도캠프 팀이 된다. ‘너희’였던 여러분은 하루 속히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시간은 상관 없다. 아손은 3주 만에 생명 건 전도자가 되었다. 언제까지 다락방 받고 설득 받고 불평할 수 없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불평이 사라지고 강단을 포럼한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문제들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사를 키울 수 없다. 다락방하는 사람이 문제가 없어서 문제를 뛰어넘는 게 아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 정리로 알아서 뛰어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뛰어넘는 믿음을 갖기 바란다.

(2)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세계복음화와 회복과 치유에 대하여 약속해 주셨다. ①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다 꾸짖으신 후에 바로 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이 십일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떠나더라도 남은 자를 통해서 237나라 5천 종족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 말씀이다. 여러분이 돌이키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까지’ 찬양을 함께하겠다. ② 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레위의 언약을 주셨다. 말라기 2장 5절에서 6절을 보겠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복음의 언약은 살리는 생명의 언약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은 모든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평강으로 이끄신다고 했다. 진정한 성령의 인도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관계없이 평강을 주시는 것이다. 문제가 있더라도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갈등, 경제문제, 질병문제, 사회, 교회문제가 있더라도 아무 관계없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주신 성령의 열매로 평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레위인의 축복이고 남은 자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도 넘치는 생명과 평강을 주시니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복음만 전하게 된다. 성령에 충만함으로 입술의 불의함도 없어진다. 결국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 ④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우울증, 정신병, 가정문제, 중독문제, 관계문제로 흑암과 어두움에 속에 갇혀있다. 이걸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참된 빛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치료하신다. 공의로운 주님의 은혜가 넘치면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 마음과 영혼과 직장과 환경에 비추신다. 제가 보니까 가끔 직장에 흑암에 덮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때마다 기도하고 빛을 비추며 밝은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확 바뀐다. 여러분이 빛의 사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주님이 복음과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사체가 되어 빛을 현장에 비추시기 바란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 현장을 살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역이 되시기 바란다.

끝으로 복음중심, 말씀중심, 명끝중심 안에서 말라기서에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과 복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라기를 통해 소중한 언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말씀의 뜻과 본질을 깨달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영혼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현장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모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